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May 5, 2022 Vol. 812

“4.29 폭동 30년...미움과 갈등 넘어 아름다운 세상 만들자”

한미기독연합회(KACC) 주최, LA 폭동 30주년 기념예배

남가주 지역 한인교계 목회자들은 LA 폭동 30주년을 맞아 지난 29일, LA한인타운 소재 시온성결교회(담임 이대연 목사)에서 기념예배를 드리고 평화와 인종화합을 염원했다.

한미기독연합회(KACC) 주최로 개최된 예배에서 목회자들은 미움과 갈등을 넘어 사랑과 화합으로 모든 민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차세대에게 물려주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기념예배에서 설교한 신원규 목사(KACC 이사장)는 “30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한인 이민 1세대들은 일궈놓은 터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서도 좌절하지 않았다”며 “폭동을 겪으며 한인사회는 더욱 단단해지고 타인종교도 더불어 가는 삶의 지혜도 얻게 됐다”고 회고했다. 신 목사는 이어 “우리 모두는



한미연합회(KACC) 주최, LA 폭동 30주년 기념예배 ©기독일보

코리언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 사회 속에 함께 교제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한인커뮤니티를 통해서 시작됨으로 복의 근원이 되자”고 설교했다.

환영사를 전한 민승기 목사(KACC 회장)는 “4.29 30주년을 계기로 한인사회가 코리언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뿌리

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미국을 함께 세워나가자”고 말했다.

4.29 폭동 당시 코리아타운에서 목회 하던 최학량 목사의 생생한 간증도 이어졌다.

당시 한미장로교회를 담임하던 최학량 목사는 “폭동이 일어난 당시 동양선교교회와 함께 각종 구호품을 모아 피해 한인들에

게 전달했고 시정직원들과 회계사, 변호사들이 자진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서로를 도왔다”며 “어려울수록 한인들은 더욱 하나였었다”고 회상했다.

최 목사는 “우리의 차세대와 후손들에게 이날을 기억하게 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미국의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 리차드 김 엘에이 김사장, 아론 폰 경찰, 유수연 ABC 교육위원장, 씨니 박 부에나팍 시장이 참석해 인사했으며, 토드 스피처 OC 검사장, 영 김 미 하원 의원, 최석호 가주의원, 캐서린 배거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LA 김영완 총영사가 영상으로 축하했다. 이인규 기자

PCUSA, 지난해 교인 5만명 · 교회 1백여 개 · 노회 4개 감소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PCUSA에서 지난 2021년 교인 5만1천여명, 교회 100여개 이상, 노회 4개를 잃었다고 한 보고서는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PCUSA 총회 사무국은 최근 직접 집계한 연례통계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PCUSA 교회 숫자는 2020년 8천925개에서 2021년 8천813개로 감소했다. 또한 교인 숫자도 2020년 약

124만 명에서 2021년 119만 명으로 감소했다. 목회자 숫자는 2020년 1만8천785명에서 2021년 1만8천458명으로, 즉 372명이 감소했다. 노회 숫자는 2020년 총 170개에서 2021년 166개로 약간 감소했다.

노회 4개가 손실된 이유는 두 가지 사건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CP는 전했다. 첫 번째는 지난해 3월 뉴저지에서 노회가 재편된 사건으로, 이 지역 노회 숫자가 7개에서 4개로 줄었다.

두 번째는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노회와 스톡턴 노회가 합병해 북중부 캘리포니아 노회를 구성한 사건이다. 합병은 교회 숫자가 감소해 이루어졌다.

PCUSA 총회 서기 허버트 넬슨 목사는 “교인 숫자 감소가 전년도보다 적었다”고 강조했다.

넬슨은 “전염병으로 교회가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그러나 이 보고서는 활동 교인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수는 약간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넬슨 목사는 “PCUSA와 다른 기독교 교단은 청년 전도와 미래교회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개발이라는 도전에 직면했다”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교회가 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다.

PCUSA 교회 중 약 82%가 보고서를 위해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이는 전체 교단 숫자 중 91%

를 차지한다.

CP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다른 종교단체들과 마찬가지로 PCUSA도 교인 숫자와 교회 숫자가 크게 감소했다.

PCUSA는 지난 2011년 2백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14년 총교회 숫자가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 교단이 쇠퇴하게 된 한 가지 요인은 성소수자(LGBT)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며 최근 몇 년 간 교회 수백여개가 탈퇴했다고 CP는 전했다.

강혜진 기자

미국 정략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 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셔!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양한 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러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50년 희년 맞은 NCKPC “하나님 앞에 다시 서자”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가 '제51회 NCKPC 총회 및 희년 기념 전국대회'를 26일 클리블랜드 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 열고 희년을 맞아 NCKPC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것을 다짐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50주년 희년대회를 열지 못했던 NCKPC는 51회를 맞는 올해 총회를 희년으로 삼아 뜻 깊은 순서들을 준비했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희년대회의 주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9)이고 부제는 '희년의 자유와 해방을 내려주소서'다.

첫날 대회에서 총회장 이재호 목사는 '리포지션 2022'(눅 4:16-1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희년이 PCUSA 내 한인교회들에 주는 의미에 대해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우리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될



총회장 이재호 목사가 NCKPC 제51주년 희년대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NCKPC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는다"고 권면했다.

이목사는 "이제는 한국과 미국 둘 다 잘 사는 세상이 됐고 없는 것이 없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 안에 결핍이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만큼 풍요롭게 사는 시대가 됐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법"이라면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우리였다.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바벨탑을 쌓은 우리 문명이었다. 지금의 때야말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제시했다.

희년의 의미에 대해 이목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년은 정말 큰 기쁨의 해였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가난한 자들을 빛이 탕감됐다. 전쟁포로가 돼 노예로 이곳 저곳으로 끌려다니던 이들이 해방이 되던 그런 날"이라면서 "희망과 꿈과 비전을 보

여주는 나팔소리 그것이 희년이고 갇힌 자와 눌린 자가 놓임을 받게 되는 것이 희년"고 설명했다.

본문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선포와 관련 이목사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선포나 선언을 하지 않으면 무서운 괴물이 된다.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인간이고 그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나 희년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을 재워치되는 것"이라면서 "복음은 사람들에게 이런 희년과도 같은 말씀이다. 모든 엮매인 것이 복음 안에 자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앞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도로 낮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주빌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박은성 목사 장애인주일 설교 “미국을 지탱하게 하는 힘은”

나성영락교회 담임 박은성 목사가 24일 장애인주일 예배설교를 통해 약한 지체를 더욱 요긴하게 쓰는 성경적 미국의 시스템을 언급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박목사는 한국의 원로인 홍정길 목사의 누이가 소아마비 장애인임에도 미국에서 AT&T라는 당시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가 있던 직장에 취직했던 홍목사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당시 그 회사는 건강한 사람보다 장애인에게, 또 경증 장애인보다 중증 장애인에게, 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장애인에게 더욱 우선권을 줬다"면서 "홍목사는 이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국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간증했다"고 말했다.

박목사는 이에 "지금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존엄하지 못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들의 존엄성을 가장 우



나성영락교회 담임 박은성 목사 ©나성영락교회

선 고려하는, 즉 '기독교적' 섬김의 실천"이라면서 "약자를 약자로 대하지 않고 강자와 같이 돌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목사는 약한 지체에 대해 바울이 언급한 구절을 들면서 이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기

에 가능했다고 해석했다. 박목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절반을 마칠 무렵,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말린다"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중

약자를 더욱 요긴하게 쓰는 성경적 시스템 강조

심이었을지 모르나 '십자가 중심'까지 나가지 못했고, 제자들이 구한 것은 '진정한 제자도'가 아닌 '세상의 제자도'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목사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에 대해 '십자가'가 등장하면서 극명하게 달라진다고 지적하며 "제자들이 구하는 '세상의 제자도'는 인기-성공-위대함을 추구하고 고난을 피하려 했지만, 예수님이 구하신 '진정한 제자도'는 인기-성공-위대함을 거부하고 고난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도 박목사는 "예수님 말씀의 진의는 '위대하게 되려고 해라'가 아니고 '으뜸이 되려고 하라'도 아니라 역으로 '너희 중 위대한 사람'이라 하면 '너희를 잘 섬기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최고의 사람'은 '모든 사

람의 종도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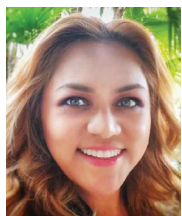
이에 박목사는 "좁게는 너희가 속한 제자 공동체의 섬김'을 넘어서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아래 앉는 섬김'으로, 또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가장 낮아져서 '십자가를 대신지는 종'까지 가길 원하신다"고 덧붙였다.

박목사는 "여전히 오늘날도 인기-성공-위대함은 세상 누구라도 모두 구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교회, 이 사회, 이 나라는 '가장 존엄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를 존귀하게 여기는 섬기는 힘'으로 살아 왔다"면서 "우리가 비교적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도리어 요긴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임혀주고,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해 주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권면했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 공화당 후보 초청 국가를 위한 기도회

National Prayer Meeting for the California Republican Candidates



Michelle Martinez
District 41
Republican
Chair



Sharon Washington
Salt & Light
Leader



Soo Yoo
District 67
Candidate
California
House



Rev. Charlyn
Park Dr.
KACRP
Honorary
Chairwoman



Jenny Rae
Candidate
Governor
California



Eric Ching
District 38
Candidate
US Congress



Rev. Jacob Lee
KACRP
Chairman



설교: Rev.
Hun Y. Cho
Great Light
Methodist
Church

오는 6월7일은 공직자 예비선거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선 5월23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캘리포니아 한인공화당에서는 캘리포니아 한인공화당 후보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제1회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며 이에 뜻을 함께하는 동포여러분을 초청합니다.

June 7th is the day for our National Primary Election. It is so important you must register to vote in advance by May 23, 2022. We cordially invite you to our 1st 'California National Prayer Meeting for the Republican Candidates' on May 15, 2022, at 6:00 PM at the Fullerton 'True Love Lutheran Church' in Fullerton, California.

Date: May 15(Sunday), 2022, 6:00 PM
Location: 'True Love Lutheran Church' in Fullerton
R.S.V.P. by May 10, Tel: (323)[820-8520] Dr. 박성녀목사

국가를 위한 기도회 위원: 강병태목사, 강만석목사, 조현영목사, 이우호목사
제임스한목사, 박성녀목사, 하세화권사, 사라박사모, 레이김사모, 이은숙사모



캘리포니아 미주한인공화당
California Korean American Republican National Prayer Committee
www.miamikoreannews.com

후원: 마이아미재외동포신문, 코랄리치한인교회, 캘리포니아성령애국집회,

나성영락교회 2022학년도 장학금 모집

장학금 총 10만 달러, 신청 마감 5월 27일(금)까지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산하 영락장학회가 2022학년도 장학금을 모집한다. 총 10만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며 신청마감은 5월 27일(금)까지다.

장학금 신청 대상 학생은 미주 한인기독교인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 학업수행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이다. 또한 2022년 가을 학기 정규 대학, 대학원, 신학대학에 재학 및 진학하는 학생으로 학위를 취득할 자이다.

장학금 종류는 미래의 미주 한인 기독교 지도자를 육성하

는 김계용 목사 기념장학금과 한인 여성 기독교 지도자를 육성하는 안나 장학금, 신학생 중 유능한 교역자를 위한 신학생 장학금, 편부모 대학생 대상의 CYL 장학금, 영락 일반 장학금, 그 외 학업 우수자와 경제적 형편에 따른 기타 장학금이 있다.

장학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장학회 웹사이트(youngnakscholarship.org)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Youngnakscholarship), 교회 웹사이트(youngnak.com) 등을 통해 신청 절차를 참고하면 된다.



장학금을 전달하는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

영락장학위원회는 지난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982년부터 지금까지 40년간 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수한 학업 성적을 성취한 학생, 교회 및 봉사 활동 등을 통해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섬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나성영락교회는 1973년 3월 LA지역에 설립된 대표적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이다. 해외 한인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기독교 신앙의 전통과 가치, 실천을 미래 세대에 계승할 뿐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남가주 지역과 미국, 한국과 세계 곳곳을 섬기고 있다.

문의는 이메일 scholarship@youngnak.com 또는 info@youngnakscholarship.org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UMC 한인교회총회 “영적 쇄신으로 기초 새롭게 세워야”

25일부터 28일까지 연차총회 개최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이하 한교총) 연차 총회가 “내가 친히 가리라”라는 주제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에서 개최됐다.

올해 총회는 불확실한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공감하며 한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연합감리교회 교단 현황과 한인 교회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조영진 감독은 연합감리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를 영적 쇄신과 부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 감독은 “쇠퇴하고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 도입이 아닌 영적 쇄신”이라며 “쇄신과 부흥은 목회자의 영적 리



“연합감리교회의 교단 현황과 한인 교회의 진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패널 토의 중 조영진 감독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일영 목사, 양훈 장로, 류재덕 목사, 조영진 감독, 안성주 장로, 황철현 장로, 한의준 목사, 사진, 김용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더십이 변화될 때 동반되기 때문에 미국 교회는 기술이 아닌 영적인 기초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감독은 한인교회와 한인교회 성도들이 지닌 소명을 언급하면서, 한인들이 가진 신앙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선교의 지

경을 확장하고 인종 화합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한인의 장점은 영적이고, 선교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어떤 민족보다 강하다. 한인 교회가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연합감리교회 내에서의 위상은 이미 달라져 있다”며 “타인종과 함께 교류하고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며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했다.

한편 올해 총회 개최예배는 한교총 총무인 김일영 목사(체리힐 제일 연합감리교회 담임)의 사회로 이창민 목사(나성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의 기도 이어 한교총 회장인 이철구 목사(남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출 33:12-14)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철구牧사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며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주신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맡겨진 길을 담대히 걸어가자”고 설교했다.

김동욱 기자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밝히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세종대), 조성영목사(장신대), 정영호목사(서울대), 이종호목사(중앙대), 송경희목사(부산대), 권준호목사(중앙대), 신영민목사(중앙대), 유관목사(새생명교회), 김관식목사(KCC), 김동욱목사

박상원 목사 책의 편지자

\$20/원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밝히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제크오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동작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 (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 (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읽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51

“하비비 인터내셔널과 윌리 탄 선교사”

선교지에서 큰 은혜중 하나는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을 만나는 것이다. 미국에 본부를 둔 실크 웨이브 미션(SWM)은 지난 13년간 터키를 중심으로 연합기도 운동과 교회 개척 운동 그리고 NGO 사역을 하면서 현지의 많은 목회자,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을 알게 되었다. 그중 오늘은 하비비 인터내셔널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하비비란 말은 아랍어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란 뜻이다. 하비비는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 지역에 본부를 두고 야지디족과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주로 한다. 이라크의 소수 민족인 야지디족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일어난 후 버려진 가옥이나, 폐허터미 속에서 혈혈단신으로 숨어 지내던 난민들을 찾아 그들을 돕고 지원하는 구제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다. 시시각각 난민들의 규모나 사정들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선교단체의 사역 범주와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실크 웨이브 미션도 2007년에 설립

탄 사역자를 위해 짧게라도 독자들과의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사역자에게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다. 2017년에 설립된 단체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 각기 사역하던 일꾼들이 한두 명씩 하비비로 합류하였다.

난민이 기거하는 곳은 어디든 그들의 사역지이다. 때로는 UN 및 다른 NGO(구호단체)들과 협력하기도 하고 더 긴급한 지역은 단독 방문하여 난민들을 돕고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들의 성육신적인 사역과 인품에 현지 난민들은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들이 기독교 단체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차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영혼들이 문을 열고 있다.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의 선교는 자기 삶과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친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 온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때를 하면서부터 사역의 방향이 난민 구제와 교회 개척 지원 사역으로 확장하면서 다양해졌다. 하비비 인터내셔널도 긴급한 때에 현지에 너무도 필요한 선교회였기에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면서 그 사역에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의 선교는 자기 삶과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친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 온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때를 하면서부터 사역의 방향이 난민 구제와 교회 개척 지원 사역으로 확장하면서 다양해졌다. 하비비 인터내셔널도 긴급한 때에 현지에 너무도 필요한 선교회였기에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면서 그 사역에 은혜를 주셨다.

하비비의 대표는 윌리 탄 선교사이다. 그는 몇 년 전 사역 중 뇌졸중으로 인해 왼쪽 눈을 실명했다. 남은 한쪽 눈마저 계속 나빠져서 진료했는데 황반변성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았다.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회복게 하시겠다는 응답을 받았고, 계속 치료 중에 있다. 그런데 치료가 극히 고통스럽다. 안구에 직접 주사기를 꽂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2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받아야만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윌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배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일을 위해 목회자를 세웠고, 목회자들은 강력한 영적 전쟁터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서서 지휘해야 할 사명자인 것이다.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⑧ “예수님께 무덤을 내어 준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필요한 순간에 등장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미지의 인물입니다. 요셉에 관한 기록은 4복음서가 공히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4복음서의 기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 제자였습니다(마27:57). 둘째 그는 부자였습니다(마27:56, 요19:38). 셋째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막15:43). 넷째,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눅23:50). 다섯째, 그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눅23:51). 여섯째,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입니다(막15:43, 눅23:51). 일곱째 그는 당돌하게 빌립보에게 예수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여덟째 자신이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요19:38). 아홉째 그는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열째, 요셉은 자기 새 무덤에 넣어 장례를 합니다(마27:60). 열한 번째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 법대로 예수님 장례를 지냈습니다.

Nicodemus), 요셉 이야기(The Narrative of Joseph), 그리고 마리아의 죽음(The Passing of Mary) 등입니다.

외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기록했다고 알려지는 니고데모 복음서(The Gospel of Nicodemus)입니다.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성경 밖의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책에서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기록은 성경의 기록과 꼭 같은 예수님 장례식 묘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투옥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다는 이유로 그는 유대인 장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신약 외경(Apocrypha)의 기록, 초대 기독교 전설, 그리고 중세 교회가 남긴 요셉에 관한 자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약 외경들은 복음서가 설명하는 요셉에 대한 기록과 거의 일치하고, 새로운 사항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경(外經)들은 정경은 될 수 없었지만, 초대 교회가 버리지 않았습다. 그만큼 초대교회가 신뢰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장례식에 화가 난 유대 장로들은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은 자신을 투옥시키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나를 능히 구출하실 것과 당신들은 별받을 것을 믿는다.” 그의 믿음과 경고대로 예수님께서 요셉을 구출해 주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기록을 가진 외경은 세 권인데, 니고데모 복음(The Gospel of

구출 이후에 장면은 니고데모 복음서가 독특합니다. 니고데모 복음서에서는 ‘요셉의 탈옥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반성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친구 7명을 통해 요셉에게 사과 편지를 전했고 어떻게 탈옥했는가를 묻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탈옥을 도왔다’고 전합니다.

둘째, “요셉의 이야기(The

Narrative of Joseph)”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는 성경 4복음서 및 니고데모 복음서 내용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었던 두 강도에 대하여 대화합니다. 두 강도 이름을 게스타(Gestas)와 데마(Demas) 라고 밝힙니다. 여기서도 아리마대 요셉은 투옥되고 예수님에 의해 풀려납니다. 요셉은 갈릴리로 가서 3일간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고 증언합니다.

셋째 “마리아의 죽음(Passing of the Mary)”입니다. 이 문서는 마리아의 승천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마리아 시종을 돕니다. 요셉은 자신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목격했다고 간증합니다. 요셉은 듣고 보고 경험한 예수님 이야기를 평생 전하며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교회 전설과 중세 자료에 의하면 요셉은 AD 63년경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 의해서 프랑스 지방에서 영국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영국의 서부지역인 쏘머셋(Somerset)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셉과 그의 동료들은 고향자 공동체를 만들어 주님을 닮은 삶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글래스톤베리에 있는 묘원에 요셉의 묘비가 있는데 이런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지낸 아리마대 요셉이 누워있다. 그의 행적은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한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신의 무덤에 헌신한 사람이다. 그는 86세의 일기로 주후 45년에 잠들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평생 주님을 섬긴 삶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요구한 담대한 믿음으로 시종여일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두란노 아버지학교
DURANNO FATHER SCHOOL
Family Builders

2022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 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

강사	날짜
1강 박세헌	5/15 (일)
2강 국윤권	5/16 (월)
3강 이정엽	5/17 (화)
4강 권준	5/22 (일)

오후 5시
등록 마감일 2022년 5월 11일 (수)

📍 LA 온누리교회
743 S. Grand View St. LA, CA 90057

● 등록비 \$150.00
Payable to Father School

● 등록문의
고광호 목사 310-896-6483
성요셉 목사 818-331-2481
*가능한 TEXT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8020 차

LA 미주

목회자 15기

아버지학교

이여령 교수의 회심 이후 15년, 책으로 만나다 (2)

이여령의 ‘메멘토 모리’... “코로나, 죽음 마주서게 해”



이여령 교수.

“세상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었어요. 그들 중에 죽음이 뭔지 알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종교는 없을 것이요. 하지만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 종교의 이름이 무엇이든 마지막 질문은 죽음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관찰하는 듯 했다’는 이여령 교수. 그의 생전 마지막 출간된 책 제목도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의 라틴어였다. 이후 그의 대화록을 정리한 책이 30여 권이나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암투병 중 정리한 그의 ‘대화록’ 첫 번째 책이기도 하다.

잘 알려져 있듯, 책은 삼성故 이병철 회장이 죽음과 대면했을 때 한 가톨릭 신부에게 던진 종교와 신, 죽음에 대한 24가지 질문에 대한 ‘이여령의 대답’이다. 암 발병 사실을 안 뒤 수술 대신 ‘병마와의 동행’을 결심한 그는 2019년 7-10월 한 잡지사 기자와 해당 질문들을 주고 받았고, 병세가 깊어진 2021년 12월 한번 더 같은 질문에 답했다.

같은 물음에 다시 답변한 이유는, 때마침 코로나로 모든 한국인 아니 전 세계 인류가 이병철 회장이 던졌던 스물네 가지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 연유로 이 책이 뜻하지 않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의 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고 이 책을 미진한 대로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을 결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여령 교수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코로나 패러독스’를 말한다. “코로나(corona)는 왕관이고, 예수님과 천사들 뒤에 원처럼 비치는 원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고 성스럽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최악의 팬데믹이 되고 가장 기괴 언어가 되었을까요. 이 코로나로 인해 전 인류가 현재 대재앙을 겪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대역병이 지나가고 나면 인구도 불어나고 그 이전보다 번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의 역설, 패러독스는 계속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을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존재로 여겼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달라졌어요. 죽음은 그저 우리 안에 갇힌 사자, 철창 안에 갇힌 호랑이에 불과했어요. 언젠가 나도 ‘그들처럼’ 죽는다고 생각은 했지만 우리 안에 갇혀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일종의 ‘판단 중지’지요. 죽음이 갖는 무서움, 저놈이 날 잡아먹을 수 있다는 공포는 관념으로만 존재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안에 갇혀 있다고 여긴 사자와 호랑이, 즉 죽음이 길거리로 뛰쳐나왔다. 특히 우리는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죄 없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 살상을 비롯한 전쟁의 각종 참상을 SNS로 직접 목격하고 있다. 실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만의 일.

“죽음의 공포, 굶주린 맹수의 습격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마을, 온 도시, 온 인류가 깨닫기 시작한 거야. 으르렁대는 호랑이는 무섭기는 하나 우리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놈이, 그 끔찍한 공포가 거리로 뛰쳐나온 겁니다. 두려움에 바들바들 떠는 사람이 타인

이 아닌 코로나19를 겪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저 사자가 안 보여.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 뒹칠지 몰라요.”

인류는 mortal(모탈),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존재임을 새삼 깨닫고 있다. 이모탈(immortal)한 존재는 하나님뿐, 하나님 이외의 존재는 다 죽는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불러낸, ‘메멘토 모리’.

이 교수는 이를 ‘원죄’라고 불렀다. “신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스스로 알게 된 거지.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지 몰라.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바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 결국 ‘자기 언급’, 즉 ‘나는 바보야’라고 생각하는 게 선악과가 의미하는 지식의 열매인 거지.”

그 열매는 미추(美醜)의 열매이고 진선미(眞善美)고 의식주(衣食住)라고 한다. 그런데, 지식의 열매가 의식주? “지식이, 지혜가 바로 의식주여.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 먹는 게 식(食)이잖아. 무화과 앞으로 몸을 가린 게 의(衣)지. 덩굴 속에 숨은 게 주(住)라고 생각해 봐요. 먹고, 입고, 숨으면서 인류의 의식주 걱정이 드디어 시작됐다고. 의식주 걱정이 바로 지식의 열매에서 나온 겁니다.”

이여령 교수는 감각과 경험이 아닌 ‘이성’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죽음을 만나고 알게 되면서,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understanding)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 역시 통념과는 다른 패러독스, 역설이다. 개별적 존재의 죽음이 아닌 인류의 죽음, 한때 옆에서 눈물 흘려줄 사람도 없이 그냥 죽어야 했던 코로나19 시대의 죽음은 우리를 더 절박해지고 더 불안하게 했다.

그 ‘죽음’은 이 교수가 여섯 살 때 문득 깨닫고 눈물 흘린 것이

었다. “죽음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신나게 글 쓰고 있는데,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이쪽으로,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명령이지(이여령의 마지막 수업).”

“죽음과 신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조리 속에서 다가온다는 겁니다(메멘토 모리).”

코로나 패러독스의 마지막에는 기독교가 있다. “오늘날 불신 받고 쇠퇴해가는 기독교에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인간의 오만과 그로 인한 재앙을 극복했던 그 힘을 되살려내는 희망입니다. 이는 ‘크리스치니티(Christianity)’가 새롭게 해석되고 기독교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흔한 말로 ‘위기는 기회’다. 기독교에 늘 있어온 일 아닙니까?”

교회는 늘 핍박받았고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처럼 인식돼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지만, 반전의 기회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듯하다.

“페스트를 겪으며 무신론이 나왔지만 거꾸로 더 기독교적인 게 나왔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교회에 갈 수 없고 교회가 병균의 온상지처럼 비춰 결과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기독교가 타격을 받는 것처럼 비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새롭게 보이고 소위 ‘얼굴이 드러났다’, 민낯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성과 영성, 의문과 믿음,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 그 ‘문지방’ 위에서 평생 사유하고 질문해온 이여령 교수는 ‘(메멘토 모리: 너 두고 나 절대로 안 죽어)’에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부터 창조와 진화, 고통과 불행, 죄악과 속죄, 성경과 종교, 영혼, 천국과 지옥, 윤리, 종말까지 특유의 감각적 언어와 비유,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주고 있다. 이대용 기자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행영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싸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 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주택/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리스팅 전문

뉴스타부동산 NEWSTAR Realty & Inv. www.newstarrealty.com

케를리 (뉴스타시어머니) 에이전트! DRE 01988895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Carole Lee Realtor Cell 714.345.4989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수면 대장내시경
- ♣ 수면 위내시경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한국 농어촌 교회 고령화 심각..10명 중 9명이 60대 이상

목회데이터연구소, 예상 통합 측 조사 결과 소개 주일예배 평균 인원은 절반이 '20명 이하' 교회학교 출석 '없다' 42% '10명 이하' 44% 농어촌 목회자 54%, 월 사례 150만원 미만

국내 농어촌교회 교인들 10명 중 9명이 나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가 소개됐다. 농어촌교회의 고령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26일 주간 리포트 제141호 '코로나19 이후 농어촌교회 현황'에서 예상 통합 측이 영남 지역 15개 노회 농산어촌 교회 221곳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교회 교인들의 연령층은 70대 이상이 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0대(27%)였다. 40대 이하는 1%에 그쳤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이는 젊은이들이 농어촌교회에 없

음을 실감하는 데이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농어촌교회 교인 10명 중 9명(89%)으로 농어촌교회의 고령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농어촌교회 목회자 연령은 절반 가까이(46%)가 60대 이상이었으며, 40대 연령층은 11% 뿐이었다. 이는 60대 이상이 37%로 나타난 전국평균(예상 통합 측 담임목사 891명 대상 조사 결과)보다 높은 비율이었는데, 연구소는 "농어촌교회 목회자가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농어촌교회의 주일예배 평균 출석 인원수(성인 기준)는 '20명 이하'인 교회가 절반(50%)이었고, '21~30명' 26%, '50~99



한 농어촌교회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명' 18%로 100명 미만인 대다수(94%)였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100명 이상'이란 응답은 6%에 그쳤다.

농어촌교회 교회학교 출석 현황을 보면 이에 '없다'는 경우가 42%나 됐다고 한다. '10명 이하' 경우는 44%였고, 11~20명이 8%, 21명 이상이 6%였다. 연구

소는 "고령화, 농어촌인구 감소, 저출산 등의 요인으로 농어촌교회 교회학교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 농어촌 목회자의 월 사례비는 절반 이상(54%)이 1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연구소는 "사례비가 아예 없거나 99만원 이하인 경우

가 전체 농어촌 목회자의 39%나 되어 농어촌 목회자들의 열악한 경제적 형편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반면 월 250만원 이상 목회자는 16%에 불과해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김진영 기자

“차별금지법안 통과되면 동성결혼 등 합법화될 수밖에”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는 등 국회에서 이 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정 반대 측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동반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의당과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이 추진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 양성평등 사회체제를,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 제3의 성별 중에서 임의로 선택 가능한 사회체제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했다.

또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이 법안에 따라 다른 모든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에, 현행 헌법조차 무시하는 엄청난

사회체제 전복법”이라며 “현행 헌법조차 무시하고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발의된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차별금지법(평등법) 관련 공청회 계획서가 4월 26일 열린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된 후 4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김수완박’ 법안의 4월 내 처리를 반대해 왔던 정의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밀실거래의 수단이 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

동반교연은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결혼은 물론 근친혼과 중혼조차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며 “또 모든 학교에서는 동성애와 다양한 성전환



동반교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CHTV

을 정상적인 것으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혐오와 차별로 간주되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언스지는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결정하는 유전자는 없다고 2019년에 발표했다. 또한,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며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의 주장을 모든 국민과 사회체제에 강제하려는 것은 학문과 표현,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 도전하는 독재사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양성평등에 근거한 헌법부터 개정하려고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진정으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핵심 내용을 숨기거나 국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정당당하게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이 계류돼 있다. 4개 법안 모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으며,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장혜영 의원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2022 - 2023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5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Southern California 내에 있는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학생
- Categories: i) General, (ii) PK & MK, (iii) Seminary

선발 인원

00 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2@joyfulccc.org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선발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2022년 5월 1일 ~ 6월 11일
- 선발 결과 발표: 2022년 8월 1일 예정
- 장학금 수여식: 2022년 8월 21일 예정

마감일 이후에접수된 신청서나 미비된서류는 선발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Tongdok Bible APP

35년 동안, 성경통독 대중화·학문화·세계화

드디어 미국 교회 성경통독 시작하다

Tongdok Bible APP
역사순 편찬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KJV (King James Version)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

무료 다운로드
·아이폰 **App Store** → 검색창 → Tongdok Bible
·안드로이드 **Play Store** → 검색창 → Tongdok Bible



Dr. James O. Davis
Global Church Network 설립자



Dr. Leonard Sweet
Drew University 교수



Pastor Leon Fontaine
Canada, Springs Church 담임목사



Dr. Glenn Burris
LA, Foursquare Church 담임목사



Dr. Kenneth Ulmer
LA, Faithful Central Bible Church 담임목사



Dr. Craig Keener
Asbury Theological Seminary 교수



Dr. Tommy Barnett
Phoenix, Dream City Church 담임목사



세계적인 성경학자 통박사 조병호의 렉처리 코스 미주 성경통독 전문강사 과정



일시: 2022년 6월 27일(월) 2:00pm~7월 1일(금) 12:00pm

장소: 잭슨빌 시온침례교회 (허병옥 목사, 미주 통독바이블네트워크 총무단장)

* 2950 Belfort Road, Jacksonville, FL 32216 / TEL: 386-235-7485 / tamuning@hotmail.com

대상: 목사, 사모, 선교사, 강도사/전임전도사 (15명 정원)

회비: 800달러 (숙식 및 교재 제공) / 자격증 수여

교재: 통성경 길라잡이,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 PPT자료, 통성경학교,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 PPT자료, 성경통독,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기타 소책자

주관: 성경통독원, 미주 통독바이블네트워크

문의 및 신청: tongdok@hanmail.net



강사: 조병호 박사

성경통독원 원장
미국 드루대학교 객원교수
글로벌차리티비니티스쿨 Board of Governors
하이기쁨교회 담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Th.B 신학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교역학석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Th.M 조직신학석사)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대학원 (Th.M 선교신학석사)
영국 버밍엄대학교 대학원 (Ph.D 역사신학, 철학박사)

2004년 세계적인 독일 신학자 RGG(Relig in Geschichte und Gegenwart)에 아티클 '세계기독교학생운동(Studentische Missionsbewegung)'을 통해 2006년 영국 왕립역사학회(Royal Historical Society)에 스피치로 초청되어 발표 2006년 삶의 방법론이자 새로운 성경 읽기의 방식으로서 '통독'을 최초로 말했다. 2007년 미래 목회자 인명 초청 기성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준비위원장 2008년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선언 '성경을 통독한 재정향(Re-orientation)' 공동대표 2010년 통독 매니페스토 컨퍼런스 대회장 2014년 '통독성경 포뮬라(Formula for TongBible)'를 발표했다. 2016년 통독바이블리자 통독성경학교 인터넷 120강의 강사 (www.tongbible.org)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독일 비텐베르크 2017 CONGRESS 스피치 2021년 글로벌차리티비니티스쿨 Board of Governors 2022년 통독바이블 앱 미국 론칭 2022년 미주 통독바이블 네트워크 설립

베스트셀러 《성경과 5대제국》- 2011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성경통독》- 2005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일반신앙부문 최우수상 수상 《통하는 사도행전 30년》- 2020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신학부문 우수상 수상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 2022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목회자료부문 우수상 수상 저서 《통솔 주석(전 2권), 《통하는 마지막 유월절, 첫번째 성찬식》 《통성경 길라잡이(개정증보판)》, 《통독성경학교》, 《통독성경학교 워크북》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외우 에피소드 70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통하는 레위기》, 《통하는 영적 예배》, 《산자와 5대제국》 《消失의帝國(中國 團結出版社/성경과 5대제국 중국판), 《성경과 고대전쟁》 《성경과 고대제국》, 《산구약 중간사》, 《성경통독과 통독신학》 등 50여종 편찬 《근글자 일관일독 통독성경》, 《역사순 통독성경》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www.LASarang.com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섬김하며, 이만2세를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19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아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름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연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도)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 방송 설교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323) 897-5751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틴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도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토)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가정)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신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름엔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예일신학교, '지구의 날' 기념 역사상 최초 비기독교적 예배 주최



미국 코네티컷 주 뉴 헤이븐에 위치한 예일신학교. ©예일신학교

2백년 역사를 가진 미국의 예일신학교(Yale Divinity School)가 지구의 날을 기념해 사상 최초로 비기독교적인 예배를 열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대학 독립매체인 예일데일리뉴스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80여명의 학생들은 지난 4월 22일 대학의 마퀸드 채플(Marquand Chapel) 밖에 모여 노래와 조교와 기도를 하며 연례 행사를 기념했다고

행사를 주최한 신학 석사과정에서 재학 중인 타샤 브라운필드는 예일데일리뉴스에 "2백여 년 역사를 가진 예일신학교에서 비기독교 예배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행사에 대해 "우주론과 범신론적 신비주의가 가미된 토착 및 흑인 생태학을 기반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범신론적 신비주의"를 종교활동으로 시작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브라운필드는 "예일신학대학에서 아주 특정한 개신교 관점에서 벗어난 사람

들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료들과 나를 위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결정했고 흑인신학, 원주민생태학을 이 공간 안에 실제로 구현하고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유니테리언적 보편주의 전통에 따른 성배 점화식에 참여했다고 CP는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인 나이 가라드는 '흑인 생태학'(Black Ecology)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전했다.

2백년 역사의 또 다른 신학교육기관 하버드신학대학원(Harvard Divinity School)도 지난 24일(이하 현지 시간) 주일 'Gathering Light'라는 유사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도 음악과 영상 공연이 선보였다.

1822년 설립된 예일신학교는 10년 넘게 지구의 날 축제를 주최했지만 일요일에 비기독교적 예배가 열린 것은 처음이라고 CP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스파이더맨' 앤드류 가필드 "배우 아니었다면 신학공부 했을 것"



영화 '타미페이의 눈'에서 TV 전도사 짐 베이커로 출연한 앤드류 가필드.

영화 '스파이더맨'에 출연했던 배우 앤드류 가필드가 신앙과 영성을 다루는 영화에 끌렸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가필드는 영화 '핵소고지'(Hacksaw Ridge)에서 제2차 세계대전 육군의 무병 데스몬드 도스를 연기하고, '타미 페이의 눈'(The Eyes of Tammy Faye)에서 복음전도사 짐 베이커에 이르기까지 필모그래피 전반에 걸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혹은 신앙인들을 그린 영화에 출연했다.

그는 존 크라카우어의 동명 베스트셀러에서 영감을 받은 범죄실화 시리즈 'Under the Banner of Heaven'에 출연한다. 이 영화에서 가필드는 신앙과 살인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탐정을 연기한다.

가필드는 베네티페어와 인터뷰에서 "신앙과 영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영적인 삶의 신비에 가장 끌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우가 아니었다면 신학공부를 했을 것 같다. 더스틴의 각색은 그렇다. 그는 연구와 일련의 상황을 제시하고 근본주의와 극단주의의 개념을 풀고 그것이 어떻게 신앙을 가짐으로써 오는 미덕과 선을 훼손하는지 설명한다"라고 했다.

CP에 따르면 과거 가필드는 종교에 대한 견해에 대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그는 할리우드 리포터에 "기독교인이 아니다. 스스로를 범신론자, 불가지론자, 때때로 무신론자라고 생각한다. 조금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혼란스럽다"라고 했다.

한편, 가필드는 2017년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영화 '침묵'에서 사제 세바스티아오 로드리게스 신부를 연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다"고 회상한 바 있다. 그의 신앙 여정과 관련해 가필드가 어디쯤 서 있는지 분명치 않다고 CP는 전했다.

당시 가필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는 일은 정말 쉬웠다. 가장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아메리칸 매거진에 말했다.

그는 최근 폴라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라인의 캐릭터를 묘사하는 동기가 삶의 죽음에 대한 매혹에서 온다고 말했다.

그는 "삶과 죽음이 전부다. 여기 있는 유한한 본성 그리고 갑자기 죽어가는 것이 흥미롭다"라고 했다. 그는 "저에게 이곳은 끝없이 흥미로운 매우 비옥한 땅"이라며 "여러분이 영성과 신앙을 다루고 있다면 실제로 삶과 죽음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큰 질문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 “세계 30억 미전도종족 전도에 투자해야”



2022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켄터키 주 루이빌에서 열린 '투게더 포더 가스펠' 컨퍼런스에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연설하고 있다. ©Youtube 'Together for the Gospel'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맥린성경교회(McLean Bible Church)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플랫(David Platt) 목사가 전 세계에 30억 명 이상인 '미전도 종족' 선교 활동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플랫 목사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린 '투게더 포더 가스펠'(Together for the Gospel, T4G) 컨퍼런스에서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플랫 목사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과 로마서 15장 18~25절을 본문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당부하신 지상 명령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한 열망”에 대해 소개했다.

플랫 목사는 “현재 30억 명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듣지 못한, 로마서 15장에 언급된 스페인(당시 서바나)에 비유했다.

플랫은 “사람들은 예멘만큼이나, 켄터키와 우리가 사는 전 지역에서 삶의 길을 잃었다”면서 “차이점이라면,

켄터키와 우리가 사는 대부분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멘보다 지금 이 회의장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면서 “만일 내가 내전으로 고통받고 굶주리는 3천만 명의 예멘인 중 한 명이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명의 기독교인을 만나지도,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플랫은 전 세계 소수 민족 집단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복음주의 연구 그룹 '조슈아 프로젝트'(Joshua Project)의 통계를 인용, “우리 교회들은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30억 인구를 사실상 간과하고 있다”면서 “미국 기독교인들이 선교에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지만, 이중 약 99%가 이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지역을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곳에 할 일이 있는가? 물론 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눈을 떠보라. 선교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실상 지상명령을 간과하고 있다”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명령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날 미전도종족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회가 미전도종족 선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교회가 변화하기로 결정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미전도종족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들”이라며 “제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증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높임받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살며 내어주고, 일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랫의 강연은 2년마다 열리는 T4G 컨퍼런스의 일부였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마지막 말씀”이었으며, 주최측은 이번이 마지막 T4G 모임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강혜진 기자

미 대학생들, 성경적 결혼관 가진 학생 처벌한 대학에 소송 제기



©CampusMania/ 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아이다호 대학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 신념을 이유로 3명의 법대 학생을 처벌하자,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발표된 연방법원 소송문에 따르면, 피터 펄렛, 마크 밀러, 라이언 알렉산더 등 세 명의 아이다호 재학생들은 이달 1일 '성소수자(LGBT) 비하 발언 사용'을 규탄하는 지역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한 여학생은 그들에게 접근하여 기독교법률협회(CLS)가 임원들에게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관계임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 세 학생은 아이다호 대학의 CLS 지부의 회원이다.

그러자 한 회원은 “성경에서 확인된 결혼과 성에 대한 유일한 견해이므로, 지부가 이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다른 회원은 여학생에서 메모를 남기면서 “이 사건에 대해 더 논의할 수 있다면 기쁘겠다.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며칠 후, 학내 민권조사국은 CLS 회원 3명 모두에게 회원과 학생

간의 어떠한 대화도 금지하는 '접촉 금지(no-contact)' 명령을 내렸다.

소송문은 “학생들이 서로 정중하고 공손하게 의견을 달리하고 이러한 주요 사안에 대한 토론을 허용하는 대신, 대학은 고소인들을 검열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학의 처벌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조항에 따라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소송문은 밝혔다.

미국의 보수 비영리 법률단체인 '자유유호연맹(ADF)'의 법률 고문인 마이클 로스는 성명에서 “종교와 이념을 불문하고, 학생들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 특히 다양한 관점에서 시민주적 대화가 필요한 직업을 준비하는 법대생들은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이어 “그러나 아이다호 대학은 피터, 마크, 라이언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그들에게 문을 닫았다”면서 “이는 어떠한 공무원이라도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대학 관계자들의 차별적 조치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OC재물 주일 예배 오후 8:00
주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 토 오전 6:00
19514 Resard St., Northridge, CA 91321, 818-883-9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저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com

신태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되어 오면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매일 4부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벤엘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churchca@gmail.com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일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umc.org

림학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별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필름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라자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수단서 예배 도중 공격당한 목회자에 법원 되려 징역형 선고



©Unsplash/Randy Fath

이번 달 예배 도중 습격을 받은 수단의 한 목회자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평화방해 금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25일 이슬람교도인 아와드 이브라힘 쿠리 판사는 스

테파누 아딜 쿠조 목사와 이브라힘 코디 장로에게 수단 형법 69조에 의거해 평화를 어지럽힌 혐의로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10일, 알자지라 주마다니 시의 하그 압달라 마을에 위치한 수단그리스도교회(SC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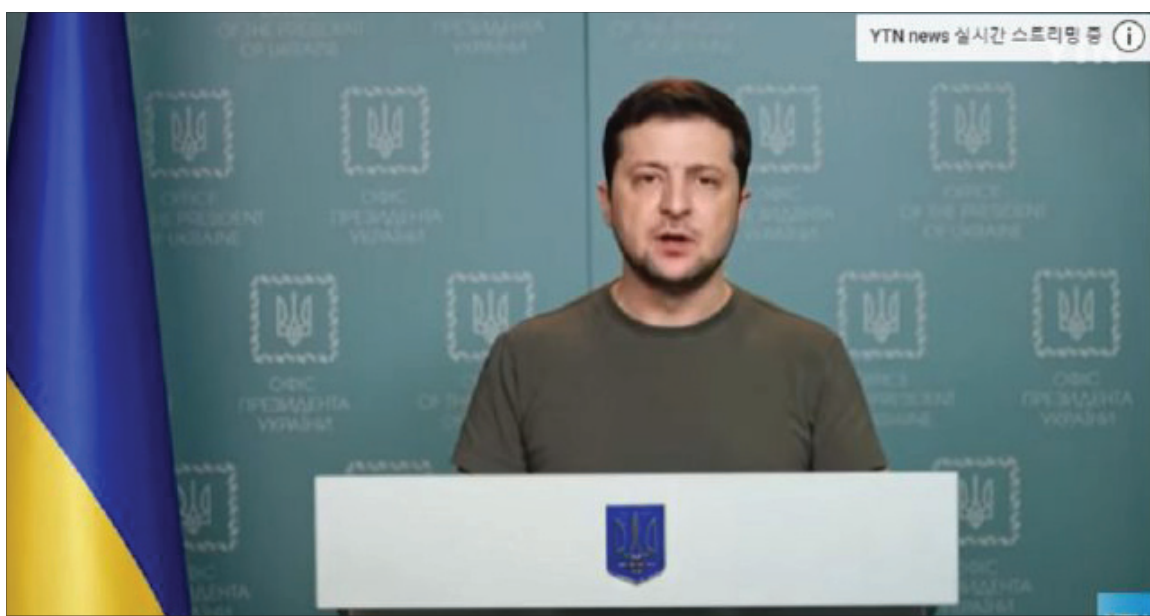
에서 3명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예배 도중 난입해 기독교인 3명을 공격했다. 교회 측 법률 대리인이며 기독교인인 웨나보 아와드에 따르면, ‘바나가’라는 이름의 폭도 중 한 명은 쿠조 목사를 때리고, 그의

셔츠를 찢었으며 여성 신도 2명을 폭행했다. 또 다른 가해자 두 명은 성경을 찢고, 교회 의자를 부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아와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공정하지 않으며, 제 의뢰인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폭력 가해자인 바나가에 대한 판결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단그리스도교회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시달려왔다. 지난 2월에는 모스크가 폐쇄된 데 화가 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쿠조 목사와 교회 전도사인 달만 하산을 고발했다. 두 사람은 경찰에 구금되어 심문을 받은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하산 전도사에 따르면, 무슬림들은 이 교회가 이슬람 사원 기도의 날인 금요일에 집회를 열어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수단은 2019년 4월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의 30년간 독재 정권이 끝난 뒤, 2년 동안 종교의 자유가 진전되었다. 당시 수단 과도정부는 이슬람 법인 샤리아의 일부 조항을 철폐하는데 성공했다. 새 조항은 모든 종교 집단을 ‘이교도’로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여, 이슬람교에서 타 종교로 개종하는 행위를 사형에 처하게 한 ‘배교 금지법’을 폐지시켰다. 그러나 2021년 10월 25일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 수단 내 종교 박해는 재개될 전망이다. 올해 오픈도어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힘든 국가’ 순위에서 수단은 작년과 동일한 13위에 올랐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국제종교자유보고서는 수단이 배교 행위를 비범죄화하고 교회 철거 중단으로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보수적인 이슬람 사회가 지배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유진 기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것”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4일 정교회 부활절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승리를 믿는다”며 “우리의 새벽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어두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어떤 무리나 악에 의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구해 달라고 위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했다. 그는 “우리는 어두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 그리고 이 밝은 날, 대부분은 밝은 옷을 입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밝은 생각을 위해 싸우고 있다. 밝은 면에서. 그리고 진실, 사람들, 주님과 거룩한 하늘의 빛은 우리 편”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온 나라가 하나돼 기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우리는 모두 기도했다. 그리고 생명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사망을 이긴 위대한 승리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 각자는 주님께 한 가지만 간구한다”라며 “위대하고 연합된 기도의 말씀. 위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우크라이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황폐해진 부차와 마리우폴 같은 도시와 잔인한 범죄에서 살아남은 모든 사

람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침공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선한 힘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친애하는 우크라이나인 여러분! 지난해 전염병으로 인해 가정에서 부활절을 기념했다. 올해는

예전과 다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다. 또 다른 바이러스

때문이다. 전쟁이라는 전염병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의 위협과 현재의 위협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어떤 것도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다”라며 “오늘의 위대한 부활절은 우리에게 빛이 어둠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생명이 사망을 이길 것이라 확고한 믿음과 커다란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부활절에 우리의 위대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크나큰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오늘은 또 다른 위대한 날이다. 우크라이나에 위대한 평화가 찾아올 날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한 조화와 변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송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SWM 선교회 채용공고

애나하임에 위치한 SWM 선교회에서 함께 할 Full time 사무직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재정 / 행정 담당
- 근 무 지 : Anaheim, CA
- 근무시간 : 월-금 (9am~6pm)
- 지원자격
 - 미국 내 합법적 취업이 가능하신 분으로 세금신고 가능하신 분
 - MS Office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활용 가능자
 - 한국어와 영어로 이메일과 SNS 소통 가능한 분, 킥북 사용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신앙 간증, 추천서
- 지원마감 : 2022년 5월 10일
- 문의 및 접수 : general@swmnet.org (website : silkwavemission.com)

SWM 선교회

담임 목사 청빙

한빛 장로 교회는 California El Monte에 소재한 미국 장로교(PCUSA)에 소속된 47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정년 퇴임하시어 제3대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격
 - 1) 학력 : 정규 신학대학원 (M.Div.이상) 졸업하신 분
 - 2) 경력 :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 5년 이상 시무하신 분
 - 3) 소속 : PCUSA소속이시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4) 언어 : 이중언어 (한국어, 영어 소통이 가능한 분)
 - 5) 신분 :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한 분
- 제출서류
 - 1) 이력서 (PCUSA Form PIF, 교단E-mail을 통해서, 또는 자필이력서)
 - 2) 목사 안수 증명서 사본,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사본 각1통
 - 3) 추천서 2통 (목사, 장로 추천서 각1통,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 4) 최근 (6개월) 설교 2회분 (동영상 file 또는 link)
 - 5) 신앙 고백서 1부
 - 6) 목회 계획서 1부
 - 7) 본인 및 가족 소개서 (가족 사진 첨부)
- 제출 마감일시: 2022년 5월 15일
- 제출처

우편 : Divine Light Presbyterian Church(PNC)
11608 Valley BL, El Monte, CA 91732
E-mail: dlpcpcusa@gmail.com
- 기타
 - 1) 제출 서류는 보안에 유의하며 청빙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문의는 E-mail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빛 장로 교회 청빙/위/원/회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안식일(安息日)에 대한 소고(溯考)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히브리서 4:8-11

안식일(영-SABBATH/히-샴바트/헬-샴바톤)의 뜻은 편안히 쉬는 날이며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말합니다(느13:19) 그리고 그 뜻은 '멈추다'입니다.

1.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A. 안식일의 유래(由來)

창세기 2:1-3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중략)...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선포하게 하실 때 출애굽기 20:8-11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중략)...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하셨으니 광야교회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네째 계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B.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선 안된다.

출애굽기 34:21에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제 칠일에는 쉼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둬 때에도 쉼지며"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옮기거나 짐승에게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17:21-22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중략)...안식일을 거룩히 할 지어다"했습니다. 안식일에 먹을 음식까지 전날에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26-27을 보면 "육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 칠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 칠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하심을 보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훈련시키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3을 보면 안식일에는 불도 피울 수 없었습니다.

C.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하심

출애굽기 31:14-15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중략)...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하셨습니다.

D.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실 날로 지키라 하심

출애굽기 31:13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했습니다. 레위기 24:8을 보면 "항상 때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 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

약이니라"했으며, 민수기 28:9-10에는 "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흄 없는 소양 돌과 고운 가루 예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때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안식일에는 성막의 진설병이 차려졌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2.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

A. 인자(예수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심

마태복음 12:1-8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밭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고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이 사무엘상 21:1-6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수행원들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사실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강변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B. 안식일에 병도 고치시며 구원 활동을 하심

마태복음 12:10-13에 회당 안에 환관 손 마른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느냐고 했을 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불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마른손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C.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누가복음 14:1-6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10-17 에서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셨는데 회당장이 분을 내어 여섯 동안에 와서 고침 받으라며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하니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중략)...매일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시니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D.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마가복음 2:27-28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셨습니다.

3. 그리스도인은 매일이 주안에서 안식하는 주님의 날로 살게 된다.

마태복음 22:35-40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중략)...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하셨으며, 로마서 8:1-4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줄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완성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구약을 통한 특별 계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례를 받았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고, 율법을 준행했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데 아직까지도 율법에 얽매인 유대인이나 안식일을 고집하는 이단도 있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증거된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사관(救贖史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모

습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로마서 3:20-24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중략)...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17에서와 같이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0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했으니 진실된 회개로 죄인이었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세례로 물속에 장례를 치렀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곧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으니 죽은 사람이 어찌 자기의 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4:7-8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살리심으로 살아있으니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날로 살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의 최우수대학(M.A.) 신학박사, 석사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8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성경사역학철학박사
- 목회학석사
- 교육목회학박사
- 목회학박사

100% 한국어
-1-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취급증서 발급,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온라인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 (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 강준민 칼럼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하는 지혜

엄마가 된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엄마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엄마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동시에 힘든 일입니다. 엄마는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엄마는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모든 관심을 아이에게 둡니다. 아이를 위해 좋은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아이를 위해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아이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아이를 위해 꿈을 꿉니다. 아이를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아이를 위해 침대를 준비합니다. 아이를 위해 옷과 기저귀를 준비합니다.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 지식을 습득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동안도 힘들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더욱 바빠집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일은 엄마에게 당연한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릴 적에는 2시간 마다 깨서 젖을 먹여야 합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샤워할 여유도 없을 만큼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엄마의

헌신은 위대합니다.

젊은 엄마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비로소 엄마가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모든 엄마들에게 위로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엄마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빠의 역할도 큼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엄마가 사랑으로 자녀를 키운다면 아빠는 훈육을 통해 자녀를 키웁니다. 서로의 역할을 알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싱글맘도 많이 있습니다. 싱글맘은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 드리고 격려해 드려야 합니다.

저는 자녀를 낳기 전까지 자녀 교육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관해 세미나를 자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은 후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저의 원칙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키운 두 딸이 이제 결혼해서 각각 두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두 딸이 자녀를 낳아 키우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는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제게 자녀를 잘 양육하는 지혜에 대해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세 가지만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 그래서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 주는 도구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키우도록 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은 중보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시 127:1상).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를 신뢰해 주십시오. 사람은 신뢰를 통해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자녀의 잠재력을 신뢰해 주십시오. 자녀의 아름다운 미래를 신뢰해 주십시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맡겨 주신 소중한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독특한 기질과 성향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엡 2:10). 자녀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자녀들은 육신의 장애를 갖고 태어남

니다. 어떤 자녀는 성격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부모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가 잘 성장하기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 자녀는 기계가 아닙니다. 자녀는 서서히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 너무 속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수와 실패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수과목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 자녀들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더욱 지혜롭게 됩니다. 자녀들은 아직 공사 중인 건물과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진면모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흉측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건물은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지혜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죽선교
박상원 목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좇는 복된 땅의 형제들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반짝이와 폭풍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돌이 다 보전되느니라”(마 9:17).

나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무슨 뜻인지 몰라 몇 날 며칠을 끙끙대며 이해하려 애를 썼다. 강해집 한 권만 있었다면 금방 알 수 있을 이 말씀을 우연히 어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구해 듣고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언약이라면서 옛 체질과 습관, 나쁜 성격과 성질을 버리고 온전히 새로운 체질과 습관, 좋은 성격과 인품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걷지 말아야 할 길을 걷다가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반짝이와 폭풍이가 생각난다.

1990년에 북한의 거리에는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라는 포스터가 나부꼈다. 이 말은 ‘

천리마 대고조 시기’라고 불리는 1950년대에 전후의 고난을 천리마로 뚫고 나온 것을 추억하며 그때를 재현하자는 뜻이다. 여기에는 ‘150일 전투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는 구호도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이 포스터를 볼 때마다 우주로 향해 로켓을 쏘아 대는 시대에 웬 천리마 운운이냐며 북한 땅이 무슨 경마장이라도 되느냐고 조롱했다.

이 문구를 패러디해 “동무는 당나귀를 탔소까?”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람

들의 조롱과 원성이 높아지자 2000년대 들어서는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자’로 포스터 문구를 바꾸었다.

북한이 굳이 1950년대를 추억한 때는 경제 파국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 가던 시대였다. 죽음의 시커먼 구름이 북한 땅을 뒤덮던 당시는 정말이지 끔찍했다. 당은 이런 위급한 상황이 가져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통해 낙원으로 나아가자’고 외쳐댄 것이다. (계속)

제4장
“천국에서 만나자, 친구야!”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교일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웃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골루르산 아연 크롬 + 홍화씨유 + 달맞이꽃 증추출물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실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100% 정품
100% 만족
100% 신뢰

213.434.1170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방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 실험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칼레이트 시퀀스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주는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213.434.1170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국가 기도의 날'이 밝았습니다.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연방정부 공식 기념일로 제정된 이래, 무려 70년간 5월 첫째 목요일은 모든 미국인이 깨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감사하는 날로 지켜졌습니다.

국가 기도의 날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올해 국가 기도의 날 주제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Exalt the Lord who has established us)입니다. 주제 본문은 골로새서 2장 6-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2022년 5월 5일 하루 동안 미국과 정부 지도자, 군인, 교회와 학교, 가정, 미디어와 사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 미국 내의 인종 갈등과 경제 위기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양한 위협들을 마주하며 이 시대의 혼란은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어떤 문제와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한인교회도 미국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매년 모든 교회가 연합한 가운데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기에 뜻 깊습

니다. 우리가 밭 딛고 있는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준 영적 아버지 나라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공립학교의 동성애 교육은 위험 수준에 다다랐고, 자유와 인권으로 포장된 반 기독교적 가치관은 다음 세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성경적 가치관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려는 악법들이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일례로, 지난 2021년 국가 기도의 날에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의 전통을 따라 국가 기도의 날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God)을 언급하지 않았

고, 많은 종교와 신념 체계들 (many religions and belief systems)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국가 기도의 날에 발표하는 선언문에서조차 기독교를 지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깊은 잠을 깨우지 않습니까?

'2022 국가 기도의 날 남가주 한인 연합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문제와 위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터전이 되시며 우리가 뿌리내린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목하고자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미국은 반드시 회복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명의 자리에 함께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찾아야 할까?

누가복음 15장 12절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잃었고 찾았을까? 질문할 때 가 많다.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지만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오늘 찾아 헤매는 것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사복서에서도 예수님 자신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잃음"과 "찾음"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된다. 그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종교지도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 세 가지이다.

먼저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에게 목자들은 날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존재라고 말씀하신다. 물론 목자들에게는 한 마리 양보다 더 많은 양들을 돌봐야 하는 직무가

있음에도 사라진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한 여인이 자신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그리면서 길 잃은 인생을 되돌아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시고 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잃었던 아들을 되찾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잃어 버렸고 찾았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 문제에 잃은 것과 찾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잃어버린



송 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자신들이 잃어버려진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있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 자신들이 영혼에 소중함을 잃고 엉뚱한 것에 정신이 팔려 헤매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주를 뒤돌아보며 혹은 지난 한 달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정작 우리에게 무엇을 찾아 헤매고, 무엇을 잃고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너무 막연할 때가 많은 것 같다. 물론 누구나 자신의 소망과 꿈을 찾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소중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많은 시간들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향해 성경은 중요한 질문을 묻고 있다. 그 질문은 바로 "만일 사람이 세

상을 다 얻고도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인가?"이다.

만일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찾아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하자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보다 중요한 고민과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 결론은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그 해답은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고백이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 잃은 것을 찾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Ag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자 Rate 월 보험료/시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학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를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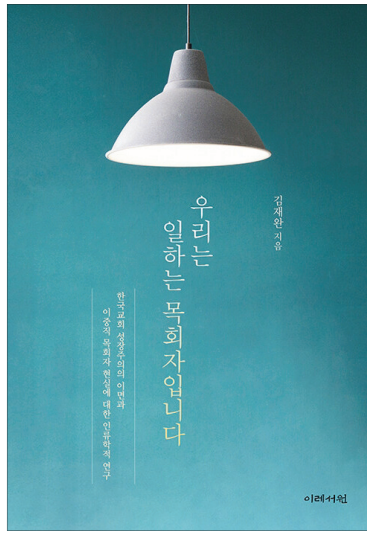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Tel: 213-739-1022

RE_FRESH CHURCH 리프레시 처치 <우리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한국교회 성장주의의 이면과 이중직 목회자 현실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김재완
이레서원 | 184쪽

'성장 불가능'
단계에 이른
한국교회의 변화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인류학도인
저자가 던지는
질문으로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보자.

도서출판 이레서원이 김재완 작가의 신간 <우리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를 출간했다. 저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경험한 한국교회 이면에 방치된 목회자의 실존과 관련된 문제들을 문화인류학이라는 인문학적 렌즈를 통해 풀어냈다.

저자는 "이 책은 특수한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한국교회 목회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보통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들은 당신이 개신교인이든 아니든,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하루에도 서너 번씩은 마주칠 수 있는 부류의 목회자들이다. 물론 그들은 '목사'로서 우리 일상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보통 목회자'들은 택배 배달원, 카페 직원, 택시 기사, 보습 교사, 청소업체 직원, 건설 현장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등의 모습으로 우리네 일상 깊은 곳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전체 교회 중 영세한 소형교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이 넘는다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이는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독교가 가파르게 성장할 때는 이 영세한 교회들에도 '언젠가는 저렇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가시적이고 타당한 이상이 존재했고, 개신교는 그런 이상

을 신과 신앙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따라서 영세한 교회들이 절반을 넘어가는 구조적 문제는 사회적으로나 교단 적으로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의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하며 작고 영세한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져 버리자, 계속해서 늘어나는 작고 영세한 교회들은 교단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이런 교회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교단별로 유사한 기준을 설정해 놓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교회들을 '미자립교회'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란 무엇인가?" 이 질문의 핵심은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어떻게 규정해 왔으며, 교회의 구성원들은 목회자를 어떤 존재로 인식해왔는지, 목회자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목회자란 무엇이어야 하며,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 아니어야 하는지이다. 이런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공교롭게도 오늘날 개신교의 모든 교단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균열이 파일로 치달아가는 과정에서 목회자들의 '정체성 담론'이 핵심적인 주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저자는 이어 "이중직을 시작하기로 한 목회자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은 그들이 지닌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초고속 성장을 경험한 한국교회, 그 이면에 방치된 목회자의 실존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한국교회 성장의 배일이 미처 다 가리지 못한 '일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문화인류학이라는 인문학적 렌즈를 통해 풀어낸다. '성장 불가능' 단계에 이른 한국교회의 변화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인류학도인 저자가 던지는 질문으로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자.

연령, 학력, 경력과 같은 특징들과 결합하여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 대부분 목회자의 삶이 한국 개신교의 교단과 교회를 벗어나 본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있다 해도 그것이 너무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이 교회 내부로만 위치 지어졌던 것은 목회자가 교회와 교단을 벗어나 '세속의 영역'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레아만 목회자로서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경제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생존하는 것의 필요조건이 된 상황에서 목회자들은 처음으로 세속의 영역에 발을 딛게 된다"라고 했다.

그는 "이중직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목회자 정체성이다. 개신교 교세 감소와 구조적 파일로 인한 일하는 목회자의 급증은 목회자 정체성을 '일반 목회자'와 '일하는 목회자'로 분화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일하는 목회자 정체성은 또다시 두 가지로 분화하는 양상을 띤다. 하나

는 성과 속의 이분법을 강화하는 방식의 일하는 목회자 정체성이며, 다른 하나는 반대로 성과 속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방식의 일하는 목회자 정체성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목회자의 삶에서 구직하기와 일하기의 영역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하면서 목회하기'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 일하면서 목회하기의 영역은 성과 속이 교차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의 독특한 삶의 방식 및 직업 이해, 그리고 정동을 자아낸다"라고 했다.

한편, 김재완 작가는 종신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대학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으나 중퇴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해 2021년에 졸업했다. 이후 경기도 화성시 소재 예수성남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으며 현재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인류학 연구들이어나가기 위해 준비 중이다.

최승연 기자

[신간] 재와 같이 흠날려지더라도

"여전히 꽃이고 여전히 나무인 그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시 하나에 다 담지 못했던 것과 자그마한 에세이로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집을 읽으며 자연스레 떠올려질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 말해주고 싶습니다."

부산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기독교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펴낸 첫 신앙 시집이다.

'좀처럼 철들지 않는 녀석'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예명의

로 시집을 펴낸 저자는 "그저 끄적이는 것이 좋아서 쓰고 쓰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자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시집은 1부 '좀처럼 철들지 않는 녀석', 2부 '떠나고 떠나보내며, 비우고 비워내야 했다', 3부는 '사랑, 그 능력이 되어간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마지막 4부는 시 하나에 자그마한 에세이 하나가 같이 있는 구조로, 소제목은 시집의 제목과 같은 '재와 같이 흠날려지더라도'이다. 총 4부이다.

1-3부에 걸쳐 순서대로 시를 감상하면 어떠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대표 시 '재와 같이 흠날려지더라도'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이어지는 에세이에서 구체화된다. 각 에세이 제목인 'Good Friday', '빈 무덤', 'En Christo'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를 의미한다.

책 속 시어들은 일상 언어들로 구성돼 있으며, 여러 이야기들 속에 자신의 신앙을 담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이처럼 싱그러운 작품들이 있다. '우리가 함께할 때 계절은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한 계절이 되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네 모습 그대로/ 오래도록,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몰라줘도 좋을 만큼, //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말해주고 싶을 만큼, // 좋아해.'

추억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들도 있다. '네가 사준 향수를 오랜만에 뿌렸다./ 여전히지만, 향이 변했다.// ... 마침내 향기가 느껴지지 않을 때서야/ 나에게 다가왔던 네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떤 향기도 나지 않던 내게./ 향기가 되 어준 네가./ 사무치도록.'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전하기도 한다. 십자가를 향해 "가까우면서도 너무 멀었다"며



"그는 십자가에 매일 가까이 갔고, 나는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이대웅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무수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애플 TV+ <파친코> (上)

나라 위기 속 기독교 역할 제대로 드러낸 영화 <파친코>

미국에서 바라본, 한일 관계 변화 속 기독교 역할
나라도 구하지 못한 민중 삶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
주인공 선자 구한 기독교 전도사 이삭 통해 표현해
일본 재일교포 차별 구체적 묘사에도 美 사회 호응

◆일제강점기 한국 기독교: 조선 민중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였던 한국교회

<메이의 새빨간 비밀>을 다룬 전편의 논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미국 미디어 업계는 정치적 올바름(PC)의 신념이 콘텐츠 제작의 기본 기조로 자리잡으면서 동양계 작가나 감독들의 작품 제작이 이전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애플 TV+에서 방영중인 드라마 <파친코>도 동양계 작가의 작품을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낸 콘텐츠이다.

이 드라마는 2017년에 발표된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동명의 장편소설을 드라마로 옮긴 것이다. 애초 이 작품은 이미 소설로 발표된 당시부터 미국 사회 내에서 좋은 평을 받았고 상업적으로도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작품의 내용은 일제강점기 시절 부산에 살던 한 하숙집 외동딸 선자(김민하 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선자는 자신보다 나이가 스무 살 가까이 많은 능력있는 생선 중개상 한수(이민호 분)와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갖게 되지만, 알고 보니 한수는 이미 일본에 아내와 세 딸을 가진 유부남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절망한 선자는 한수를 떠나고, 자신의 집에 하숙하고 있는 기독교 전도사 이삭(노상현 분)이 이 사정을 알고 선자에게 동정심을 보이게 된다.

이삭은 오사카로 건너가 선교사로 일하기 위해 부산에 내려왔다. 그러나 폐질환으로 몸이 안 좋아 하숙집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선자와 그 어머니 양친(정인지 분)이 이삭을 집으로 들여 보살펴주게 된 이력이다.

이삭은 양친과 선자에게 자신을 구해준 데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데다, 선자와 보다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 이미 임신한 선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오사카로 험한 길을 나선다.

오사카에서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전도사 이삭은 외지에서 고생하며 사는 한국인들을 위한 목회에 전념하나 이들에 대한 일본 사회의 차별의 현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선자 역시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 속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두 아들을 키우느라 힘겹게 살아가게 된다.

이 작품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줄거리 외에도 많은 추가적인 서사가 담겨 있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 기독교 교역자의 이미지,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인 가정이 일본 사회에서 겪는 차별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 작품에서 이민진 작가가 한국 초기 기독교회에 대해 제대로 짚어낸 점이 있는데, 바로 일제 식민지가 되어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에 크나큰 혼란을 겪고 있던 당시 조선 민중에게 기독교 신앙이 커다란 위로와 구원의 길을 선사했다는 점이다.

이민진 작가는 <파친코>의 이삭 전도사라는 캐릭터를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 기독교회가 일제도, 그리고 망해버린 나라도 구해주지 못한 조선 민중의 삶과 정신세계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그 묘사 방식이 남녀간 애정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된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미국인들이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 속에 상당한 애착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여실하게 확인된다.

◆한미 관계와 한국 기독교: 한미 문화외교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

통상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가 차별과 멸시의 삶을 감내해야 했던 한 기독교 교역자 가정의 일대기를 담은 드라마 <파친코>.

본과 미국의 외교 관계를 보면, 거의 항상 한국이 일본에 밀리는 입장인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 측면에서 봐도 그렇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 선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항상 한국이 일본보다 미국인들, 특히 미국 교회의 관심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만큼 한국은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삶의 구원을 얻을 길을 찾았고, 일본인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설 <파친코>가 미국 내에서 받은 높은 평가, 그리고 이어진 드라마의 제작 성사와 흥행에는 이런 기독교적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대개 미국의 정계, 학계, 그리고 문화계는 한일 관계를 바라볼 때 일본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 일전 일본인의 입장만을 편향적으로 반영해 해방 직후의 한국인들을 악의적으로 묘사했던 소설 <요코 이야기>의 미국 내 역사 교과서 채택 논란 당시에도 미국의 학계, 교육계, 문화계 전반은 일본 편을 주장해 더 귀를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다.

일제 치하 조선인 성노예 문제도 잊을 만하면 일본 우익 편의 입장만 옹호하는 미국 역사학자들이 등장해서 역사왜곡 시정을 웨방하곤 했다.

이는 애초 미국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 일본이 한

국을 식민지화하는 일에 외교적으로 한 손 거든 사례(가쓰라-태프트 밀약)가 있어 그에 대한 역사적 정당화가 필요한 데다, 태평양 제해권을 장악하는 데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파친코>의 경우 그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파친코>에는 일본인들, 특히 일본의 우익 세력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여길 내용들이 곳곳에 담겨 있는데도, 미국 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의 차별,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재일교포들에게 가해진 일본 사회의 강력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미국 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은 것이다.

이는 우선 이민진 작가가 <파친코> 집필을 결심하게 된 이유와도 연관이 있다. 이민진 작가는 1989년 대학생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고 귀국한 미국 선교사들이 일본 내에서 재일교포들이 받는 심한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 소설의 서사에 대한 단서를 얻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적 있다.

미국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나라도, 국제사회도, 그 어느 곳 기댈 곳이 없어 기독교 신앙에 매달렸던 한국인들의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와 자국 전통

종교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선교사들의 전도를 외면하던 일본인들의 배타적인 태도가 비교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이런 배타성이 기독교 신앙의 수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데서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현대에 인색하고 오히려 지독한 차별을 감행하는 데서도 여실하게 드러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파친코>의 서사는 이 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 일제강점기, 아직 한국 민중의 삶이 유교적 가부장제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던 시절, 사회 전체로부터 한없는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미혼모로 전락할 위기에서, 기독교 전도사 이삭에 의해 구함을 받은 선자는 일본 오사카에서 다시금 외인들에게 한없이 배타적인 일본인들에 의해 극심한 멸시와 차별을 감내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어려운 와중에 그녀를 지탱해준 건 가족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그리고 이를 지켜내며 살 수 있게 해준 기독교 신앙이다.

<파친코>의 서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조명하고 있으며, 이로써 미국 사회에 한국인들이 근현대사에서 받은 고통과 역경,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이야기를 설득력있게 전해주고 있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상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2022년 여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빌릭스 교수, Ph.D.
(플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실라이도요 교수, DMSS
(플러신학교) 타문화사역



데이빗 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김판호 교수, Dr. theol.
(독일 본대학교) 조직신학

온라인 수업 제공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 모집 학위과정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 장학금

여름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 4. 성적증명서(영문)
-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원서접수

여름학기 접수기간	2022년 5월2일 (월) - 5월 20일(금)
합격자 발표	2022년 6월 2일 (목)

■ 여름학기 일정(5주)

2022년 7월 11일(월) - 8월 12일(금)

■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626) 653 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명예이사장 이영훈, Ph.D.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ITS신학대학원은 예수님을 모른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전 미국,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당신의 올스타에게 자신감을 높여주세요.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가 5세 이상이라면 COVID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은 중증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은 여러분과 자녀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큰 자신감을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vaccines.gov](https://www.vaccines.gov)에서 가까운 백신 접종소를 찾으세요.

함께
이겨냅시다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